

기고



하수철 순천소방서장

비상구! 생명의 문

3년 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참사를 잊은 것일까.

우리 사회 곳곳, 여전히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은 여전한 듯하다.

화재로 인한 사망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연기 한 두 모금만으로도 의식이 저하되고 동시에 산소공급을 방해받아 단시간 내에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최대한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연기의 흡입이다.

화재 시 연기의 이동 속도는 초당 수평 0.5~1m, 수직 2~3m, 계단실 3~5m이다.

1~2초 만에 2~3층을 올라가는 연기를 피해 스스로의 목숨을 지킬 방법은 바로 생명의 문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다.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길목이 창고로 사용되는 바람에 20명이 2층

여탕에서 숨진 제천 화재 참사. 아물지 않는 상처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 불감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막혀있고 잠겨있는 비상구' 관련 보도들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순천소방서에서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비상

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적절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 목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 2회 이상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정부가 안전에 관한 법제와 매뉴얼을 개선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의식변화가 그 해결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순천이 되길 희망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조지폐 구분 현미경 시각으로 살펴보자

가히 신용카드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실 생활에서는 현금사용처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모 지역 전통시장과 만화방에서 손님으로 부터 건네받은 돈이 위조지폐로 판명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조지폐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갖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주변 전통시장은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물리게 되고 이러한 혼잡을 틈타 위조지폐를 사용할 개연성이 높는데 특히 손님맞이에 바쁜 상인들이 일일이 건네받은 지폐를 세심히 들여다볼수 없고 또한 새벽시간대는 더욱 위조지폐 판별에 취약한 따라 더욱 주의해야 한

다. 위조지폐 유통은 코로나19 여파로 가뜰이나 생계가 어려운 영세상인을 더욱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위조지폐인지 식별이 익숙하지 않은 영세상인과 노인 가게업주는 비록 소액의 지폐라도 지니고 있는 지폐와 건네받은 지폐를 상호 비교해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경찰에서도 위조지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래시장과 소형마트, 길거리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위조지폐 식별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각도의 범죄예방책을 시행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전 이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자세

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지면을 통해 간단히 위조지폐 식별법을 알아보자.

5만원 지폐에 대한 위조지폐 여부는 일단 불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숨어있는 신사임당 그림이 있는지 살펴본 후 지폐를 기울여 보았을 때 각도에 따라 신사임당 숨은 그림 왼쪽에 있는 띠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보면 알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신사임당 숨은그림 우측 띠형 홀로그램에 태극무늬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보면 최소한 위폐에 의한 피해는 막을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만원권은 불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세종대왕 숨은 그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지폐를 기울여 보았을 때 각도

에 따라 세종대왕 숨은그림 오른쪽 사각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숫자 10000, 4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섬세히 살펴보면 위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1만원권 위조지폐는 컬러 복사기로 복사할 경우 지폐 우측 끝부분에 은색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눈에 위폐임을 알수있을 것이다. 범죄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책인 만큼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폐에 대해 위폐여부는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것이며 만약 위조로 의심되는 지폐를 발견하였다면 이후 절대 만지지 말고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해주길 당부 드린다.

정부의 위폐제작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조지폐 종종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물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